

##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링쿠키 커플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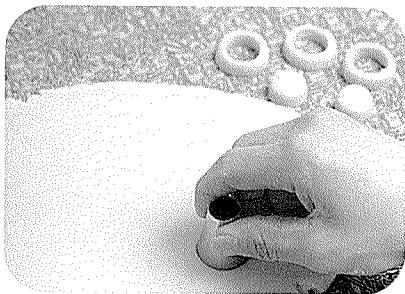


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겨냥한 많은 선물제품이 선보여지고 있다. 가격이 저렴해 아이들도 좋아하고 깜찍한 아이디어에 연인들이나 부부들도 좋아할만한 울산 ‘황일하베이커리’의 ‘링쿠키 커플반지’를 소개한다.

〈진행 / 허미경 jpkyong@mbakery.co.kr〉



제품 실연  
오승용(황일하베이커리)



### 배합 / 재료 중량(g)

박력분 1,406, 설탕 844, 버터 562, 아몬드파우더 281, 계란 5개, 소금 10, 베이킹파우더 5, 우유 50

### 만드는 법

- 설탕, 버터, 소금을 믹싱하면서 계란을 3번에 나누어 넣는다.
- 체친 박력분, 아몬드파우더, 베이킹파우더를 ①에 넣고 섞는다.
- ②에 우유를 넣고 반죽한다.
- ③을 파이프러를 이용해 10mm 두께로 밀어뀐다.
- 반죽을 원형깍지의 위, 아래 부분으로 찍어 링모양을 만든다. <사진 1>
- 150°C에서 10~15분간 구워낸다.
- 구워낸 비스킷에 칼라 초콜릿, 구슬 초콜릿 등을 로열아이싱을 이용해 붙여 장식한다.



### 제품 개발 배경

근래에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해 어린 학생이 많은 ‘황일하베이커리’에서는 제과점의 선물용 제품이 어린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파악해 ‘링쿠키 커플반지’를 개발하게 됐다.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비스킷부터 데코레이션용 초콜릿까지 전 제품이 먹을 수 있는 소재라는 것이 이 제품의 특징이다. 그동안 팬시점이나 편의점으로 향했던 학생들, 특별한 선물 준비를 생각하지 않았던 주부 등을 대상으로 틈새 시장을 노린 이 제품은 이번 특수절에 기대 이상으로 폭넓은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.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아이디어 상품으로 그만인 ‘링쿠키 커플반지’는 2개 1세트가 1,500원에 판매되고 있다.